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역사서술: 최근 통일 왕국 시대 고고학 발굴 결과를 중심으로

강후구(서울장신대)

1. 서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구약성서는 역사가에 의하여 해석된 역사서술이다.¹ 구약성서는 전하고 있는 내용보다 짧게는 몇 십 년 길게는 천 년 이상 지난 이후에 저술/편찬된 것이기에 그 내용이 전하는 시대의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술/편찬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었다(아래 논의 참조). 과연 성서는 얼마나 역사적 사실을 담보하고 있는가?²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 1 이는 역사가의 시대와 과거의 시대 간의 대화가 일어난 역사서술로, 넓은 의미에서 E.H. 카가 정의한 역사로 볼 수 있다(E.H. 카, (지교철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아름다운 날, 2009)).
 - 2 약 이십 년 전 유윤중은 성서가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유윤중, “고대 이스라엘 역사 찾기와 고고학: 수정주의자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2004), p. 105). 우택주는 통일 왕국 시대의 역사성과 관련한 논쟁을 연구한 바 있다(우택주, “주전 10세기 통일왕국 시대의 역사성 논쟁”, 『복음과 실천』 54/1(2014), pp. 15-42).

그 결과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한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구약성서 시대 가운데 역사성과 관련하여 논의가 없는 시대는 없지만, 가장 열띤 논의가 일어난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주전 10세기, 고고학적으로 후기 철기 시대 초기)이다.³ 구약성서가 전하고 있는 통일 왕국 시대의 내용을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⁴ 구약성서의 해석된 역사를 수정하거나 전면 부정해야 한다는 관점까지 다양하다.⁵ 이에 따라 그 시기의 특징으로 기술된 왕국 형성이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⁶ 방법론적으

-
- 3 김영진은 구약성서의 역사성은 분열 왕국 시대부터이고 통일 왕국 시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시대로 한편으로 역사성이 있으면서도 신학적 성격이 강한 시대로 평가하고 있다(김영진, 『이스라엘 역사』(서울: 이레서원, 2012), p. 46).
 - 4 Y. Yadin, "Solomon's City Wall and Gate at Gezer", *IEJ* 8(1958), pp. 80-86; B. Mazar, "The Ear of David and Solomon", in A. Malamat (ed.), *The Age of the Monarchies: Political History, World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IV/1* (Jerusalem: Massada, 1979), pp. 76-100; A. Malamat, "A Political Look at the Kingdom of David and Solomon and its Relations with Egypt", in T. Ishida (ed.), *Studies in the Period of David and Solomon and Other Essays: Papers Rea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Biblical Studies, Tokyo, December 1979* (Tokyo: Yamakawa-Shuppansha, 1982), pp. 189-204.
 - 5 N.P. Lemche, *Early Israel: Anthropological and Historical Studies on the Israelite Society before the Monarchy* (Leiden: Brill, 1985); T.L. Thompson, *The Origin Tradition of Ancient Israel 1: The Literary Formation of Genesis and Exodus 1-23* (JSOTSS 55, sheffield: JSOT Press, 1987); G.J. Wightman, "The Myth of Solomon", *BASOR* 277/278(1990), pp. 5-22; G.W. Alströ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from the Paleolithic Period to Alexander's Conquest* (JSOTSS. 146, Sheffield: JSOT Press, 1993); C.M. McCormick, *Palace and Temple: A Study of Architectural and Verbal Icons*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13, Berlin: De Gruyter, 2012); G. Lehmann/H.M. Niemann, "When Did the Shephelah Become Judahite?", *TA* 41(2014), pp. 77-94.
 - 6 A. Faust, "Abandonment, Urbanization, Resettlement and the Formation of the Israelite State", *NEA* 66/4(2003), pp. 147-161; I. Finkelstein, "[De]formation of the Israelite State: A Rejoinder in Methodology", *NEA* 68/4(2005), pp. 202-208; A. Faust, "Rural Settlement, State Formation, and "Bible and Archaeology"", *NEA* 70/1(2007), pp. 4-9.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국가 형성 시기를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주전 9세기(N. Franklin, *State Formation in the Kingdom of Israel: Some Tangible Symbols of Statehood*. Unpublished Ph.D. diss. (Tel Aviv University, 2005), 남유다 지역에

로 성서는 신학적 사상에 지배를 받은 것으로 사료로서 가치가 없기에 성서 외적 자료(역사 자료와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될 경우에만 역사 자료로 수용하거나, 성서를 제외하고 역사 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만 역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 성서 자료, 역사 자료, 고고학 자료 모두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수용하는 입장까지 다양하다.⁷

본 연구는 통일 왕국 시대 역사 재구성을 위한 세 자료 가운데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역사성과 왕국 건설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것이 가지는 구약성서의 역사서술 이해를 논하고자 한다.

2. 고대 이스라엘 역사 재구성을 위한 세 자료

성서가 기술하고 있는 통일 왕국 시대의 인물/사건과 이를 기술/편집한 역사가 간의 대화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한 첫 작업은 이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세 가지 자료-성서 자료, 역사 자료, 고고학 자

서 주전 9세기 또는 주전 8세기로 주장하였다(I. Finkelstein, "The Rise of Jerusalem and Judah: The Missing Link", *Levant* 33(2001), pp. 105-115; D.W. Jamieson-Drake, *Scribes and Schools in Monarchic Judah* (Sheffield: Sheffield University Press, 1991); E.A. Knauf, "King Solomon's Copper Supply", E. Lipinski, (ed.) *Phoenicia and the Bible* (Leuven: Peeters, 1991), pp. 167-186). 그리고 그 중심은 중앙 산악 지역이 아닌 쉬펠라 지역이라고 주장하였다(Z. Herzog/L. Singer-Avitz, "Redefining the Centre: The Emergence of State in Judah", *TA* 31(2004), pp. 209-244.

7 이러한 입장차이를 이른바 최소주의자와 최대주의자로 나누기도 한다(우택주, 윗글, pp. 19-24; 강후구, "이스라엘/팔레스틴 고고학 역사: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논쟁들", 「숭실사학」 제50집(2023), pp. 112-114).

료-는 필수적이다.⁸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인물과 사건이 이 자료 간에 공통적 또는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에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면 7개 (또는 8개)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 역사 재구성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세 자료가 겹치는 부분(그림 1의 제1영역)을 파악해야 하며, 이후 두 개의 자료가 겹치는 부분 세 영역(그림 1의 제2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자료에서만 전해진 내용(그림 1의 제3영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⁹ 이러한 과정은 역사실증주의적 기계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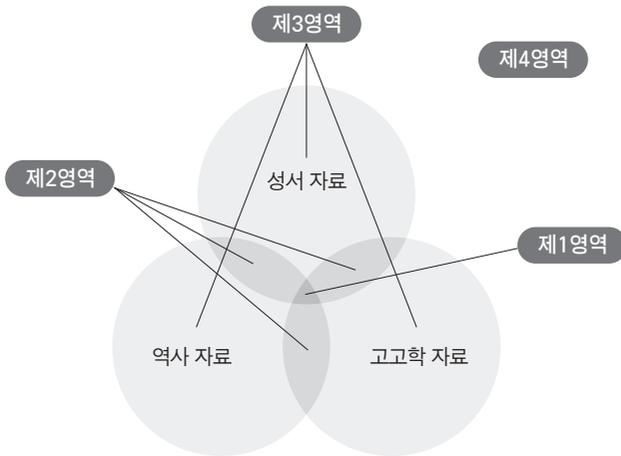


그림 1. 고대 이스라엘 역사 재구성을 위한 세 자료

- 8 강후구, 『성서와 고고학: 이스라엘 정착부터 시삭침공까지』 (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2014), pp. 23-29; 김영진, “이스라엘 역사 연구 방법론과 그 과제”, 『구약논단』 제1집(8) (2000), pp. 181-182. 헤이즈는 이 세 자료들 이외에 유비론적인 방법론이 있다고 주장 하였으나(J.H. 헤이즈, “이스라엘 역사의 재구성에 대하여”, 안홍철 역, 『시대와 민중신학』 제4집(1997), p. 377) 시대와 환경이 다른 역사를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따른다.
- 9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역사가 있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그림 1의 제 4영역).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자료의 부재를 바탕으로 역사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 세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 인물/사건을 역사가의 시대에 비추어 대화한 결과가 역사 자료(성서 자료와 역사 자료)이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기본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심 시대인 통일 왕국 시대가 가진 문제는 세 자료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제1영역)이 없으며, 두 개의 자료가 겹치는 부분(제2영역)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 시대에 관한 직접적인 고대 근동의 역사 자료는 거의 전무하며, 무엇보다 통일 왕국 시대에 관하여 무엇보다 많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구약성서가 통일 왕국 시대보다 몇 백 년이 지난 이후에 완성되었고 더욱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 역사 기술되었기에 사료로서의 한계점을 지닌다.¹⁰ 이에 성서 외적 자료(역사 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통하여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역사 자료는 자료의 양이 정제된 반면(새롭게 알려지는 것이 한정적인데 반하여) 고고학 자료는 매년 적지 않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발굴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고, 발굴 결과들은 통일 왕국 시대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왕국 시대의 역사와 역사서술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후, 최근 이 시대와 관련한 성서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왕국 시대 역사 이해에 가져온 새로운 점들과 이것이 이 시대의 역사성 논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볼 것이다.

10 J.K. Hoffmeier, "Out of Egypt: The Archaeological Context of the Exodus", in M. Warker, (ed.) *Ancient Israel in Egypt and the Exodus* (Washington: Biblical Archaeology Society, 2012), p. 2.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고고학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킨다. 이에 관한 논의로 Y. Garfinkel/I. Kreimermann/P. Zilberg, *Debating Khirbet Qeiyafa: A Fortified City in Judah from the Time of King David*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6), pp. 108-117을 보라.

3. 통일 왕국 시대의 역사 자료

1) 쇼생크 1세 벽부조(Wall Relief of Shoshenq I)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통일 왕국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역사 자료는 매우 희박하며 그마저도 간접적이다. 이는 주전 10세기경 고대 근동 강대국들이 각각 약화된 시기를 맞이하였음에 기인한다. 이집트는 제 3 중간기 시기를 지나고 있었으며,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세력인 앗시리아는 아직도 이스라엘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세력을 갖추기 이전이었다. 고대 근동의 세력들이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면서 사료들이 다시 생산되고 고대 근동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들은 주전 9세기에 이르러서야 나오기 시작한다.¹¹ 다만 통일 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분열 왕국 초기의 주전 10세기 말에 주요한 역사 자료가 이집트에서 제공되는데 이집트 제22왕조 쇼생크 1세¹²가 일으킨 정복 전쟁이다.¹³ 룝소 카르낙 신전의 부바스티스 문에 새겨진 쇼생크 1세의 이스라엘 지역 원정에 관한 벽부조 자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첫째, 쇼생크 1세의 원정 사건은 이집트 역사 자료뿐만 아니라 성서 자료(왕상 14:25, 대하 12:9)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¹⁴, 고고학적으로

11 마르크 반 드 미에를, (김구원/강후구 역) 『고대 근동 역사: B.C. 3000년경~B.C. 323년』 (서울: CLC, 2022), pp. 329-330.

12 쇼생크 1세가 구약성서의 시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D. Redford, *Egypt, Canaan and Israel in Ancient Tim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강후구, *윗글* (2014), pp. 163-164 참조.

13 주전 10세기에 일어난 시삭 침공의 중요성은 일찍이 마자르가 잘 지적하여 주었다. A. Mazar,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0), pp. 397-398. 이 사건의 중요성을 레이니 또한 인지하여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었다. 앤손 F. 레이니/R. 스티븐 노틀리, *윗글*(2010), pp. 222-223, 243-249.

14 달리 말하면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확인된다.¹⁵ 따라서 이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근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그림 1의 제1영역). 그렇다면 쇼생크 1세(주전 943-922년) 시기에 시행된 그의 원정이 르호보암 제5년에 일어났다는 성서 기술과 관련하여 주전 926/925년으로 설정하고¹⁶, 르호보암의 선조(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주전 10세기로 연대 설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하나는, 154개에 이르는 쇼생크 1세의 원정 목록에 중앙 산악지역 [아얄론(26번), 기랏타임=기랏 여아림(25번), 베히론(24번), 기브온(23번), 츠마라임(57번), 답부아(39번), 미그달(58번), 디르사?(59번), 소고(38번)]이 포함된 것은 쇼생크 1세 이전과 이후 시대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다. 대규모 군대가 몰살될 수 있는 산악 지역으로 군사 원정이 행해졌다는 것은 중앙 산악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실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베히론길로 올라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진행된 것은 남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⁷ 달리 말하면 쇼생크 1세 원정 어디에서도 왕국과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지만, 그의 원정 이전에 산악지역에 세워진 기반 세력 아마도 영토-국가 세력(아래 고고학적 논의 참조)을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텔 단 비문(Tel Dan Inscription)

통일 왕국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관 없으나 주전 9세기의 역사 자료 가운데 통일 왕국 시대 즉, 다윗 왕조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15 강후구, *윗글*(2014), pp. 168-169.

16 최근의 이집트 자료를 분석한 쇼트랜드는 쇼생크 1세의 원정이 주전 917년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A.J. Shortland, "Shishak, King of Egypt: the Challenge of Egyptian Calendrical Chronology", in T. E. Levy/T. Higham (eds.), *The Bible and Radiocarbon Dating: Archaeology, Text and Science* (London: Equinox, 2005), pp. 43-54.

17 강후구, *윗글*(2014), pp. 165-170.

자료는 아람어로 기록된 텔 단 비문이다. 1993-1994년에 발견된 아마도 아람왕 하사엘에 의하여 기록된 이 비문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글들이 저술되었고, 학자들은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았다.¹⁸ 이 비문이 발견되기 이전에, 역사 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사성은 주전 9세기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오므리 왕조부터 발견된다는 주장이 있었다.¹⁹ 이 비문이 발견됨으로 성서 외적 자료에서 처음으로 다윗이란 이름이 알려졌을 뿐 아니라 다윗이 남유다 왕국의 시조격으로 아람인들에게 인식되었음이 알려졌다. 이는 앗시리아 비문에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Bit 'Humri*)로 기록한 것과 유사하다(아래 내용 참조).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비문이 발견된 이후에 이 비문을 다윗 왕조로 읽지 않고 지명으로 이해하려 시도하였고, 모음을 달리 읽어 다윗이란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로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하거나,²⁰ 또는 그 의미를 축소하였다.²¹

이 자료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역사서술의 특징은 이미 어디선가 다루었기에,²² 여기서는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하여 비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가치평가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

이 비문에 따르면, 주전 9세기 하반기에 아람은 남서쪽 이스라엘인

18 A. Biran and J. Naveh, "An Aramaic Stele Fragment from Tel Dan", *IEJ* 43(1993), pp. 81-98; idem., "The Tel Dan Inscription: A New Fragment", *IEJ* 45(1995), pp. 1-18; 김영진, "단 석비와 이스라엘 역사", 『구약논단』 13(2002), pp. 107-127.

19 N.P. Lemche, *Ancient Israel: A New History of Israelite Society* (Sheffield, 1988); T.L. Thompson, *Early History of the Israelite People: From the Written and Archaeological Sources* (Leiden: E.J. Brill, 1992).

20 P.R. Davies, "House of David Built on Sand: The Sins of Biblical Maximizers", *BAR* 20/4(1994), pp. 54-55; idem., *In Search of 'ancient Isra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1 이스라엘 핑켈스타인/닐 애셔 실버먼, *윗글*(2001), pp. 158-167.

22 강후구, *윗글*(2022), pp. 103-108.

들의 왕국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가 아닌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분열 왕국의 왕들은 각각 (--)람과 (--)야후로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성서가 전하고 있는 이 시기의 왕들 가운데 -람으로 끝을 맺는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요람이며, -야로 끝을 맺는 남유다 왕은 아하시야 뿐이다. 주전 9세기 아람 왕국이 앗시리아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커졌고 반앗시리아 연맹의 주축이 되었다는 것은 앗시리아 역사 자료에 기록되어 있으며,²³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였다는 것은 구약성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²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언급하였지만, 남유다는 베이트 다비드- 다윗의 집/왕조로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 주전 9세기 앗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또는 오므리의 집/왕조로 언급하였는데,²⁵ 북이스라엘 지역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람인들의 비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언급한 것과는 달리, 유다를 다윗의 집/왕조로 언급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다윗보다 약 150년 이후의 시대에 북이스라엘보다 지역적으로 더 먼 지역인 남유다를 다윗의 집/왕조로 언급한 것은(발견된 장소도 남유다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다윗에 대한 역사성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적어도 그 당시 남유다 왕국

23 앤손 F. 레이니/R. 스티븐 나틀리, 윗글(2010), pp. 250-256, 261-264.

24 구약성서, 적어도 신명기 역사서에서 아람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한 시대는 주전 9세기로 한정하여 전하고 있다. 주전 10세기까지 아람에 대한 구절(17)은 종교적 이유인던지(삿 10:6), 국제적 관계속에서 아람을 공격하여 굴복시킨 내용으로 소개하던지(삼하 8:5, 6, 12; 10:6, 8-9, 11, 13-19), 무역 관계에서 기술하고 있다(왕상 10:29). 아람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침략한 시대는 주전 9세기로서 아람 세력의 확장이 남쪽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약성서에서 아람에 대한 구절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많다. 신명기 역사서에서 아람에 대한 구절의 약 70%가 주전 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5 쿠르크 비문에는 아합과 함께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언급한 반면(앤손 F. 레이니/R. 스티븐 나틀리, 윗글(2010), p 262), 블랙 오벨리스크에서는 에후를 오므리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 북이스라엘이 오므리의 집/왕조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A. Mazar, 윗글(1990), p. 404).

의 시조로 위상을 지닌 인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예루살렘 비문(Ophel Inscription)

최근 이십 년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은 이전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대한 석조 건물 발견과 함께 가장 큰 변화는 비문의 발견이다.²⁶ 이 비문의 글자에 대한 읽는 방식과 내용과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이전 150년간의 예루살렘 발굴을 통하여 주전 8세기 이전의 비문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2년에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²⁷

오펔 지역에서 발견된 이 비문에 대해서는 이전 어디에서 다루었기에²⁸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지만, 기록된 토기 형태와 비문의 글자 형태 분석은 이 비문의 연대가 통일 왕국 시대와 연관된 주전 10세기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비문이 가져온 통일 왕국 역사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

글자는 모든 행정의 중심이다. 문서와 관료제도가 없이도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지만²⁹, 문서가 국가 초기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주전 10세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글자 없이 행정이 이루어진 곳은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는 행정체계를 바탕

26 강후구,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구약 시대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8(2018), pp. 204-214.

27 E. Mazar/D. Ben-Shlomo/S. Ahituv, “An Inscribed Pithos From the Ophel, Jerusalem”, *IEJ* 63(2013), pp. 39-49.

28 강후구, 윗글(2014), pp. 155-157. 최근 바인스투브는 이 비문이 가나안어나 히브리어가 아닌 사바어로서 주전 10세기 경 사바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D. Vainstub, “Incense from Sheba for the Jerusalem Temple”, *Journal of Jerusalem Archaeology* 4(2023), pp. 42-68).

29 B.G. Trigger, *Understanding Early Civilization: A Comparative Stu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595-598.

으로 성립, 유지되는 국가 형성에 관한 논의와 직결된다. 그동안 남유다 지역에 국가 형성은 주전 8세기에 와서야 이루어졌고,³⁰ 문서 활동에 기반을 둔 관료제도가 주전 7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고 주장된³¹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남유다 지역에 주전 10세기부터 8세기 중반까지 비문의 부재였다. 달리 말하면 고문서적 증거를 기반으로 주전 10세기에는 국가가 형성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발견된 비문의 정확한 연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비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인가? 아니면 여부스족 즉 가나안인들의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이 이전에 어떠한 논의를 펼쳐왔는가에 대한 주장과 연관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 형성을 성서 기술을 바탕으로 주전 10세기로 이해했던 이들은 이 새로운 발견이 그들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이해한 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 형성은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이후 남유다 왕국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이들은 이 비문을 다윗, 솔로몬과 연관된 통일 왕국 시대와 연결시키지 않고 가나안인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주전 10세기 고문서적 증거(Epigraphical Evidence in 10th century BCE)

유물 시장에서 알려진 비문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알려진 주전 10세기의 비문은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³²

주전 10세기의 것으로 알려진 비문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30 D.W. Jamieson-Drake, *읽글*(1991).

31 I. Finkelstein/N.A. Silberman, *읽글*(2002), pp. 271-344.

32 B. Sass, *The Alphabet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The West Semitic Alphabet ca. 1150-850 BCE. The Antiquity of the Arabian, Greek and Phrygian Alphabets*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2005); J. Renz, *Die altheräischen Inschrift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S. Ahituv, *Echoes from the Past: Hebrew and Cognate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Period* (Jerusalem: Carta, 2008).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총 11개로서 알랩벳 비문(abecedary)³³을 비롯하여 인명(personal name),³⁴ 물품의 소유주 표시(owner mark),³⁵ 물품 목록(contents mark?)³⁶ 등의 단순 글뿐만 아니라 약 80개의 글자를 포함하는 비교적 긴 글(Khirbet Qeiyafa Ostrakon)³⁷을 포함한다.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된 이 비문들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 비문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부터 네게브 지역 아라드에 분포되어 발견되었고, 동서로 산악 지역에서 쉬펠라 지역까지 그리고 계

-
- 33 R.E. Tappy/P.K. McCarter/M.J. Lundberg/B. Zuckerman, "An Abecedary of the mid-Tenth Century B.C.E. From the Judean Shephelah", *BASOR* 344(2006), pp. 5-46;
- 34 "베다의 아들 이쉬바알"- Y. Garfinkel/M.R. Golub/H. Misgav/S. Ganor, "The 'Isba'al Inscription from Khirbet Qeiyafa", *BASOR* 373(2015), pp. 217-233; 소렉 골짜기의 두 장소(텔 바타쉬-딤나, 텔 벤세메쉬)에서 "하난"이란 이름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A. Mazar/N. Panitz-Cohen, *Tinnah (Tel Batash) II : The Finds from the First Millennium BCE* (Qedem 42, Jerusalem: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01), pp. 190-191; S. Bunimovitz/Z. Lederman, "Beth-Shemesh, Culture Conflict on Judah's Frontier," *BAR* 23 (1997): p. 48. 텔 레호브에서는 통일 왕국 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지층 VI에서 네 개의 비문이 발견되었고 이 중 하나는 분명히 "슈알의 아들 마타에게"라고 적혀 있어 적어도 두 명의 인명을 알 수 있다. S. Ahituv/A. Mazar, "The Inscriptions from Tel Rehov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Script and Writing during Iron Age IIA" in E. Eshel/Y. Levin, (ed.) *See, I Will Bring a Scroll Recounting What Befell Me (Ps 408): Epigraphy and Daily Life from the Bible to the Talmud. Dedicated to the Memory of Hanan Eshel* (Journal of Ancient Judaism, Supplements, 12) (Vandehoeck & Rupprecht, 2013), pp. 39-68, 189-203. 한편 텔 레호브의 지층 V의 연대는 주전 10세기 부터 시작하여 주전 9세기까지 연대 설정 가능하기에 여기서는 제외된다(앞글, pp. 51-53 참조).
- 35 Y. Alexandre, "A Fluted Bronze Bowl with a Canaanite-Early Phoenician Inscription from Kefar Vradim", in Zvi Gal, (ed.) *Eretz Zafon. Studies in Galilean Archaeology* (Jerusalem :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2002), pp. *65-*74.
- 36 E. Mazar/D. Ben-Shlomo/S. Ahituv, *윗글*, 39-49. 이 비문의 연대를 좀 더 이른 시기의 주전 11세기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동시대 비문의 글자 형태를 분석해 보았을 때 통일 왕국 시대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에 대한 논의는 D. Petrovich, "The Ophel Pithos Inscription: Its Dating, Language, Translation, and Script", *PEQ* 147/2(2015), pp. 130-145 참조).
- 37 H. Misgav/Y. Garfinkel/S. Ganor, "The Ostrakon", in Y. Garfinkel/S. Ganor, (eds.) *Khirbet Qeiyafa Vol. 1: Excavation Report 2007-2008*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9), pp. 243-257.

국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비문들을 다시 어느 언어로 구분할 것인가 따라 이 비문들의 분포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 비문들은 같은 글자 형태와 구문을 사용하고 있어 언어권으로는 동질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발견되는 물질문화는 초기 철기 시대(주전 12-11세기)에는 중앙 산악 지역과 계곡 지역 간의 이질성을 보여준 것에 반하여 후기 철기 시대 초기(주전 10-9세기)의 물질문화는 일부 초기 철기 시대의 연속성을 지니지만 중앙 산악 지역과 쉬펠라 지역의 물질문화와의 유사성을 보여주기³⁸ 앞서 언급한 비문의 동질성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통일 왕국 시대의 범위와 영향력을 가리키는 증거일 수 있다.³⁹

둘째, 이 시기의 비문 가운데 알파벳 비문의 발견은 이 시기 서기관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준다. 알파벳 비문은 이미 주전 1100년경 이즈벳 차르타에서 발견되어 이 시기에 서기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 템스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⁴⁰ 주전 10세기에도 알파벳 비문이 발견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먼저는 이 가능성의 연속성이 이 시기에 도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다른 점은 초기 철기 시대에는 국가 형성과 관련된 고고학적 발견물이 없는데 반하여 후기 철기 시대 초기에는 이후 살펴보게 될 요새화된 도시 건설, 계획화된 도시, 공공건물 등의 새로운 물질문화가 등장하면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알파벳 비문이 남유다 지역에 속한 지역의 조그만 촌락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성벽이 갖춰

38 A. Mazar, "The Beth Shean Valley and its Vicinity in the 10th Century BCE", *Jerusalem Journal of Archaeology* 1(2021), pp. 241-271.

39 윗글, p. 260.

40 A. Demsky, "The 'Izbet Sartah Ostrakon: Ten Years Later", in I. Finkelstein, *'Izbet Sartah: An Early Iron Age Site near Rosh Ha'ayin, Israel* (BAR International Series 299), pp. 186-197.

진 도시가 아닌 촌락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일부 이기는 하지만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문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저장용 항아리 어깨 부분에 인명을 기록된 것은 아래에서 살펴볼게 될 인장의 발견, 유다 지역의 조세 활동과 관련된 항아리 손잡이 발견 등과 함께 이 당시 행정 활동의 증거를 보여준다.

4. 통일 왕국 시대의 고고학 자료

물질문화를 다루는 고고학 자료 또한 과거 역사를 다루는 것이며 따라서 고고학자는 역사 연구가로 볼 수 있다.⁴¹ 본 연구의 중심 논의가 될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를 다루기 전에 고고학 자료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하였던 성서 자료나 역사 자료와 달리 고고학 자료는 신학적, 정치적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우리에게 남겨진 자료이다. 전하고 있는 인물과 사건보다 한 참 후에 쓰인 성서 자료나 역사서술하고 있는 이들의 해석(사관) 프리즘을 통하여 기술된 역사 자료와는 달리 고고학 자료는 이러한 과정 없이 당대의 생활상을 가리키는 이점이 있다.⁴²

둘째, 고고학 자료가 당대의 생활상 최종 모습을 전해주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남겨진 고고학 자료 또한 읽어야 할 텍스트이며,⁴³ 그 몫은 고고학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때 고고학자들의 해석이 동

41 W.G. Dever, "Solomon, Scripture, and Science: The Rise of the Judahite State in the 10th Century BCE", *Journal of Jerusalem Archaeology* 1(2021), pp. 102-103.

42 Y. Garfinkel/I. Kreimermann/P. Zilberg, *윳글*(2016), pp. 101-107.

43 I. Hodder/S. Hutson, *Reading the Past: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반되며, 그 해석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다. 따라서 하나의 고고학적 결과가 여러 가지 해석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⁴⁴ 문제는 이 해석으로 인하여 고고학적 논쟁이 발생한다. 구약성서가 전하고 있는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하여 가장 열띤 논쟁⁴⁵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석이 가미된 고고학적 결과들이 출판되고(심지어 발굴보고서에도 볼 수 있다!), 그것들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여기서는 통일 왕국 시대)를 재구성하는데 객관적 사실처럼 수용되는 위험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부분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고고학에서도 적용된다. 이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어떠한 고고학적 발견물(유적과 유물)은 그 자체보다 먼저 그것이 발견된 고고학적 문맥 전체를 살펴야 함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한 장소에서 알려진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다른 고고학적 발굴 장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166-169. 레스터 L. 그래비, 윗글(2012), (류광현/김성천 역) 『고대 이스라엘 역사: B.C. 2,000년경~B.C. 539년』, (서울: CLC, 2012), pp. 38-39.

44 여기에 더하여 통일 왕국 시대는 신앙공동체의 경전으로 여기는 구약성서가 관련되어 있기에 최소주의자와 최대주의자의 입장으로 크게 나뉘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던 상관 없이 이러한 해석의 주관성은 모두에게 나타난다. cf. 강후구, 윗글(2014), pp. 76-80; 레스터 L. 그래비, 윗글(2012), pp. 60-63, 70-77.

45 예루살렘의 고고학적 결과에 관하여 각기 다른 견해로 J.M. Cahil, “Jerusalem at the Time of the United Monarchy: The Archaeological Evidence”, in A.G. Vaughn/A.E. Killebrew, (eds.) *Jerusalem in Bible and Archaeology*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pp. 13-80; D. Ussishkin, “Solomon’s Jerusalem: The Text and the Facts on the Ground”, in A.G. Vaughn/A.E. Killebrew, 앞글, pp. 103-116. 통일 왕국 시대의 전체적인 고고학적 논의에 해석 차이는 A. Mazar, “The Search for David and Solomon: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in B.B. Schmidt, (ed.)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Israel*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pp. 117-145; I. Finkelstein, “King Solomon’s Golden Age: History or Myth?”, in B.B. Schmidt (ed.), 앞글, pp. 107-116. 이와 더불어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된 고고학적 지층의 연대 논쟁이 있다(이 논의와 관련된 연구사와 논쟁 핵심에 대해서는 강후구, “이스라엘 핀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의 ‘저연대(Low Chronology)’ 주장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구약논단』 65(2017), pp. 172-209를 보라.

소들에도 적용하는 것은 중간단계의 타당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용한 예는 모두 주관적 해석의 확대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년 고고학적 발굴과 지표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고고학적 사실들은 모두 부분적이며 따라서 잠정적이다.⁴⁶ 고대 이스라엘 역사 재구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고고학적 자료들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고고학적 논의에서 매우 본질적이다.

1) 예루살렘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 지층 10에서 발견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아래 지층은 한 번의 파괴도 거치지 않고 지층 21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된다.⁴⁷ 그렇다면 이 지층의 연속에서 언제 가나안인들의 지층에서 남유다 왕국의 것으로 연결되었는가?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가나안인들의 물질문화에서 이스라엘인들의 물질문화로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으며 지역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각각의 장소에 대한 변화를 분석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예루살렘은 언제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집중적으로 발굴되었다. 다윗성으로 알려진 장소는 현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방위적으로 발굴되었다. 특히 서쪽 경사면과 기혼샘 주변의 발굴과 서쪽 지역의 기브아티 발굴 결과를 종합하면 가나안인들의 물질문화는 지층 16에서까지 발견되고 이후 Area G 지역의 거대한 계단식 석조 버

46 레스터 L. 그래비, *윗글*(2012), pp. 78-79.

47 Y. Shiloh, *Excavations at the City of David I: 1978-1982. Interim Report of the First Five Seasons* (Qedem 19,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84), p. 3.

팀벽 구조물 (Step Stone Structure) 위에 건설된 거대한 석조 건물(에일랏 마
 자르가 “Large Stone Structure”로 명명한 건물)은 이후 나타난 거대한 변화이
 다. 문제는 이 건물이 언제 건설되었고 누구의 것인가가 명확하게 구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문제를 고고학자들은 잘 알고 있
 기에 저마다 이것이 초기 철기 시대(지층 15에 해당한다)의 가나안인들(여
 부스족)에 의하여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하거나,⁴⁸ 아니면 이것이 후기 철
 기 시대 초(지층 14)의 이스라엘인들에 의하여 건설된 것이라는 의견⁴⁹
 으로 크게 나뉜다. 계단식 버팀벽 구조물 아래에서 발견된 초기 철기 시
 대의 토기들보다 그 위에서 발견된 바닥을 바탕으로 연대 설정한다면
 이것은 지층 14 즉 주전 10세기 경 세워진 것이다. 일부 이 건물이 헬라
 시대에 건축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⁵⁰ 이 건물이 지층 14에 속한 계
 단식 건축 구조물과 관련하여 건축되었다는 점과 비록 바닥은 아니지
 만 온전한 키프로-페니키아 Black-on-Red(BoR III)가 발견되었다는 점,
 이 건물의 일부 벽이 헬라 시대의 물 저장고 건설시 파괴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건물 아래층에서 가나안 시대 토기가 발견된다는 점은
 고고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8 A. Mazar, “Jerusalem in the 10th century B.C.E.: The Glass Half Full”, in Y. Amit/Y. Ben Zvi/I. Finkelstein/O. Lipschitz, (eds.) *Essays on Ancient Israel in Its Near Eastern Context: A Tribute to Nadav Na’aman*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6), pp. 255-272; A. Faust, “The Large Stone Structure in the City of David”, *ZDPV* 126/2(2010), pp. 116-130.

49 E. Mazar, *The Palace of King David: Excavations at the Summit of the City of David: Preliminary Report of Seasons 2005-2007* (Jerusalem: Shoham Academic Research and Publication, 2009).

50 I. Finkelstein/D. Ussishkin/L. Singer-Avitz, “Has King David’s Palace in Jerusalem been found?”, *TA* 34(2009), pp. 142-164.

2) 도장과 인장

최근 예일랏 마자르는 예루살렘 다윗성 G 지역의 벽과 망대를 허물고 그 아래쪽의 새로운 발굴(2005-2008년)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도장과 인장이 발견되었다. 발굴 보고서를 통하여 빈더바움은 6개의 도장과 26개의 인장을 보고하였는데 초기 철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 말기까지의 것이다.⁵¹

도장은 행정적인 목적 이외에 장신구나 부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진흙 인장이 함께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전자의 경우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들 가운데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된 것은 도장-1번, 4번, 5번, 인장- 15번이다. 도상학적으로 도장 1번과 5번은 출토된 고고학적 문맥은 후대의 것이지만 도상학적 분석으로 통일 왕국 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한 도상학 모티프를 보여주고 있는 도장 4번과 인장 15번은 통일 왕국 시대의 지층 14와 연관이 있다.⁵² 따라서 후대 시대의 것보다는 숫자가 미미하지만, 행정 문서 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도장들이 사용될 수 있고, 다윗성에서 발견된 인장이 이를 뒷받침 하기에, 앞서 언급한 오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과 함께 주전 10세기경 행정 문서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51 A. Winderbaum, "The Iconic Seals and Bullae of the Iron Age", in E. Mazar, (ed.) *The Summit of the City of David. Excavations 2005-2008. Final Reports Vol. I. Area G* (Jerusalem: Shoham, 2015), pp. 363-419. 이는 라이히와 슈크론이 기혼샘 주변 물저장고 발굴을 통하여 약 200개 가까운 진흙 인장(주전 9-8세기)을 발견(R. Reich/E. Shukron/O. Lerna, "Recent Discoveries in the City of David, Jerusalem", *Qadmoniot* 133(2007), pp. 32-40 (Hebrew); R. Reich/E. Shukron, "Two Hebrew Seals and Three Hebrew Bullae from the City of David", *Eretz-Israel* 29(2009), pp. 358-362 (Hebrew))한 것과 함께 다윗성의 도장과 인장 발견물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52 A. Winderbaum, *윗글*(2015), pp. 405-407.

3) 키르벳 케이야파

엘라 골짜기에 위치한 키르벳 케이야파는 통일 왕국 시대, 특히 다윗 시대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 급부상한 장소이다. 이 장소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의미는 이미 적지 않은 서적과 고고학 발굴 보고서와 수많은 단편글에서 다루었다.⁵³ 키르벳 케이야파가 통일 왕국 시대의 역사와 연관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논의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연대 설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족지 논쟁이다. 이스라엘 역사 재구성에서 성서 자료, 역사 자료, 고고학 자료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 중 하나가 앞서 살펴본 쇼생크 1세(시삭) 침공인데 주전 10세기 말경에 일어난 사건이며 이는 르호보암 왕 시기에 일어난 것이다.⁵⁴ 이를 바탕으로 솔로몬과 다윗 시대를 거슬러 추정하면 통일 왕국 시대는 주전 1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왕국 시대의 역사와 관련하여 키르벳 케이야파에 관한 다음 몇 가지 요소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대 논쟁- 키르벳 케이야파의 연대는 절대연대와 상대연대를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종합하면 주전 1000경에 건설되어 970년까지 정착한 것으로 이해된다.⁵⁵ 이는 다윗 시대와 관련되며 후기 철

53 Y. Garfinkel/S. Ganor, (eds.) *Khirbet Qeiyafa Vol. 1: Excavation Report 2007-2008*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9); Y. Garfinkel/S. Ganor/M.G. Hasel, *Khirbet Qeiyafa Vol. 2. The 2009-2013 Excavation Seasons. Stratigraphy and Architecture (Areas B, C, D, 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4); H.-G. Kang/Y. Garfinkel, *Khirbet Qeiyafa Vol. 6. Excavation Report 2007-2013: The Iron Age Pottery*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8); Y. Garfinkel/H.-G. Kang, "The Relative and Absolute Chronology of Khirbet Qeiyafa: Very Late Iron Age I or Very Early Iron IIA?", *IEJ* 61 (2011), 171-183; H.G. Kang/Y. Garfinkel, "Finger-Imprinted Jar Handles at Khirbet Qeiyafa: New Light on Administration in the Kingdom of Judah", *Levant* 47 (2015): 186-205; Y. Garfinkel/M.R. Golub/ H. Misgav/S. Ganor, "The 'Isba'al Inscription from Khirbet Qeiyafa", *BASOR* 373 (2015): 217-233. 이 장소와 관련된 종합적인 논의와 참고문헌은 Y. Garfinkel/I. Kreimerman/P. Zilberg, *윗글*(2016), pp. 121-236, 237-269 참조.

54 앤슨 F. 레이니/R. 스티븐 노틀리, *윗글*, pp. 243-249; 강후구, *윗글*(2014), 161-170.

55 방사성동위원소 탄소 14의 결과는 주전 1050-918년으로 연대 설정이 가능하다(Y.

기 시대 초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위협적 세력인 블레셋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요새로서, 그 당시 블레셋인들의 가장 큰 도시-국가 세력인 가드(이 세력은 주전 9세기 말경 아람왕 하사엘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왕하 12:17 참조)가 엘라 골짜기를 통하여 중앙산지로 침입할 때 이를 막기 위한 군사 시설로 이해된다.⁵⁶

둘째, 민족지 논쟁- 키르벳 케이야파가 누구의 것인지 논의에 포함된 민족으로 블레셋, 가나안, 북이스라엘인 그리고 유다인 이렇게 네 부류가 있다. 전체 토기 가운데 약 2%가 되지 않고 그것도 모두 그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외부 지역에서 만든 것을 수입한(이는 정착민이 블레셋인들의 것이라면 그 지역의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아쉬도드 토기를 제외하고 블레셋 토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가나안인들의 특징적인 채색 토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엘라 골짜기가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이 아닌 남유다 지역에 속한다는 점 등은 키르벳 케이야파가 블레셋인, 가나안인, 북이스라엘의 도시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다. 반면 도시계획, 비문, 돼지뼈 분석 결과, 빵굽기용 접시 등은 이곳이 남유다인들의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케 한다.⁵⁷

Garfinkel/S. Ganor, 윗글(2009), p.36).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일부 학자들은 이 장소가 약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착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I. Finkelstein and E. Piasezky, "Khirbet Qeiyafa: Absolute Chronology", *TA* 37(2010), pp. 84-88), 층위학적 분석은 이 장소가 단기간(아마도 한 세대)만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초기 철기 시대의 전형적인 블레셋 두 채색 토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후기 철기 시대의 전형적인 토기(흑색 손잡이 병, 사이프러스 수입토기-Cypriote White-on-Black)가 발견된다는 점, 후기 철기 시대의 전형적인 장식인 적색 덧입힘 위에 손마름질 장식(irregular hand burnishing on red slip)이 발견되고 후기 철기 시대의 다른 장소들보다 이른 시기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 등은 이 장소가 초기 철기 시대가 아닌 후기 철기 시대 초의 것으로 주전 1000-970년경에 정착되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56 H.-G. Kang, *The Pottery Assemblage of Khirbet Qeiyafa and It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early 10th century BCE in Judah*. Unpublished Ph.D. diss.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12), pp. 214-220.

57 앞 글, pp. 202-214.

위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키르벳 케이야파가 주전 10세기 초의 것이며 남유다인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곳 발굴을 통하여 나온 모든 유적과 유물은 다윗 시대와 역사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의 발굴 결과는 통일왕국시대 역사 평가 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키르벳 케이야파는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2.3 헥타르), 약 10만 톤의 돌로 건설된 두 개의 성문과 성벽, 즉 요새화를 갖춘 도시이다. 또한 이 도시는 정형화된 구조로 계획되어 건설된 모습이 고고학적으로 알려졌으며, 가나안, 블레셋,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오직 남유다 지역에서만 알려진 포곽 성벽(casemate city wall)에 개인 가옥이 접하여 건설된 모습이 성 전체를 두르고 있다. 이는 분명 건설 당시 중앙 지배자에 의한 도시 건설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이 성은 파괴로 종말을 맞게 되어 엄청난 양의 유물이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많은 양의 토기와 금속 제품들, 제의와 관련된 물품 등 발견된 유물 가운데 특징적인 발견물로서, 700개 가까운 저장용 항아리 손잡이에 찍힌 손가락 인장⁵⁸과 두 개의 비문⁵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전 10세기 초 당시의 행정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최근 논의된 고대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 논의에 직접적인 고고학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전 10세기 초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신전 모델 두 개가 발견되었다.⁶⁰ 하나는 진흙으로 만들어 졌으며 또 다른 하나

58 H.-G. Kang/Y. Garfinkel, *윳글*(2015), 186-205.

59 H. Misgav/Y. Garfinkel/S. Ganor, "The Ostrakon", in Y. Garfinkel/S. Ganor, *윳글*(2009), pp. 243-257; Y. Garfinkel/M.R. Golub/H. Misgav/S. Ganor, *윳글*(2015), pp. 217-233.

60 Y. Garfinkel/M. Mumcuoglu, *Solomon's Temple and Palace: New Archaeological Discoveries* (Jerusalem: Old City Press, 2016), pp. 13-60.

는 돌로 제조되었다. 이 중 돌로 만들어진 신전 모델의 계단식 입구 틀과 입구 구조 그리고 대들보 등은 신명기 역사서가 전하고 있는 솔로몬 시대의 궁전과 성전과 관련된 기술과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 세 겹의 나무판자로 엮어진 대들보는 왕상 7장 3절의 궁전 지붕과 관련 있으며,⁶¹ 세 번의 계단식 구조 입구 틀(recessed door-frame) 모양은 솔로몬 성전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왕상 6:33)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왕상 6:31)과 연관된다. 벽의 사분의 일 또는 벽의 오분의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르비잇과 하미šet은 두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계단식 장식이 몇 번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²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네 번에 걸쳐 계단식 구조가 나타나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구는 다섯 번에 걸쳐 계단식 구조가 나타나게 건설되어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계단식 구조가 점점 더해 짐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고대 근동의 궁전과 신전에서 널리 알려진 이러한 계단식 구조가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되었는데 다윗 시대에 이미 이러한 구조가 이스라엘 내에서 잘 알려졌고, 이를 솔로몬 성전에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명기 역사서술과 연관된 또 다른 고고학적 발견물로서, 신명기 역사가의 시대보다는 성서가 기술하고 있는 시대와 연관된다.⁶³ 어쨌든, 부친 다윗 시대에 사용한 건축 양식을 솔로몬 시대에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는 아래에서 살펴볼 왕상 9장 15절과

61 M. Mumcuoglu/Y. Garfinkel, "Triglyphs and Recessed Doorframes on a Building Model from Khirbet Qeiyafa: New Light on Two Technical Terms in the Biblical Descriptions of Solomon's Palace and Temple", *IEJ* 63(2013), pp. 135-163.

62 강후구, "열왕기상 6장 31, 33절 번역 제언", 『서울장신논단』 30(2022), pp. 445-463.

63 이와 연관된 논의로서 A. Mazar, "Remarks on Biblical Traditions and Archaeological Evidence Concerning Early Israel", in W.G. Dever/S. Gitin, (eds.) *Symbiosis, Symbolism and the Power of the Past: Canaan, Ancient Israel and their Neighbors from the Late Bronze Age through Roman Palestine*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6), pp. 255-272; 강후구, 『윗글』(2014), pp. 220-229.

연관된 장소에서도 발견된다.

4) 왕상 9:15절과 하술, 므깃도, 게셀

다윗과 관련된 통일 왕국 시대 고고학적 논쟁보다 이전에는 솔로몬 시대와 관련된 논쟁이 일찍이 20세기 하반기에 이루어졌다. 다윗에 대한 성서 외적 자료 언급이 1990년대 초반에 발견되었지만,⁶⁴ 솔로몬에 관한 성서 외적 기록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이는 구약성서의 기술과 상반된 것으로, 그의 명성이 그 당시 국제적으로 알려질 만큼 유명하였고, 유일하게 바로의 딸과 결혼한 왕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고대 근동 어느 지역의 자료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진 역사를 전하고 있는 성서 기술에 대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 핵심 구절은 왕상 9장 15절이다.⁶⁵

이 구절에 언급된 네 도시가 모두 발굴되었다. 앞서 살펴본 예루살렘을 제외하면 모두 중앙산악 지역이 아닌 곳에 자리잡은 세 도시-하술, 므깃도, 게셀은 공통적으로 그 당시 국제도로인 해변 길에 위치하며, 주변에 넓은 농경지를 배경으로 하는 중심도시이다. 갈릴리 지역 요단 계곡 평야에 위치한 하술, 이스라엘 평야의 므깃도, 쉬펠라 북부 지역의 게셀은 무역과 농업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들이었는데 왕국이 분열된 이후 모두 북이스라엘 영토에 속한 도시가 되었다. 통일 왕국 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하술 지층 X,

64 A. Biran/J. Naveh, *윗글*(1993), pp. 81-98; *idem.*, *윗글*(1995), pp. 1-18. 고문서학자 A. 르메호에 따르면, 메사 비문 31번째 줄에도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다(A. Lemaire, "House of David Restored in Moabite Inscription", *BAR* 20/3(1994), pp. 30-37).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31번째 줄에는 다윗이 아니라 발락이 언급되었다는 주장이 있다(I. Finkelstein/N. Na'aman/T. Römer, "Restoring Line 31 in the Mesha Stele: The 'House of David' or Biblical Balak?", *TA* 46(2019), pp. 3-11.

65 이 구절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논의 역사에 대해서는 강후구, *윗글*(2014), pp. 114-128을 보라.

므깃도 지층 VA-IVB, 게셀 지층 VIII⁶⁶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결과물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장소에서 6실 성문과 포곽 성벽으로 요새화를 갖춘 도시들이 발견되었다. 므깃도에서 시행된 새로운 발굴을 통하여 포곽 성벽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⁶⁷ 이곳에서도 비트-힐라니 구조의 궁전이 발견되었다. 므깃도에서는 독특한 이올리안 주두(Aeolitic capital)가 지층 VA-IVB에서 발견되어(M2, M4-5, M11) 아마도 궁전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⁶⁸ 달리 말하면 이들은 모두 각 장소에서 이전 지층들과 다른 모습 즉, 국가 형성 논의를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고, 갈릴리 북부 지역(하술 지층 X), 이스라엘 평야 지역(므깃도 지층 VA-IVB), 쉬펠라 지역(게셀 지층 VIII)에서 각각 행정 중심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둘째, 위 세 장소의 층위학과 토기 형태 분석, 방사성동위원소 탄소 14의 절대연대 결과는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⁶⁹ 텔 이스라엘

66 하술 지층 X, 므깃도 지층 VA-IVB, 게셀 지층 VIII의 시대를 주전 10세기가 아닌 주전 9세기로 연대 설정하려는 이른바 “저연대” 주장이 있으나 몇 가지 고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용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강후구, 윗글(2017), pp. 172-209.

67 이를 오래전에 아하로니가 지적한 이래(Y. Aharoni, “The Stratification of Israelite Megiddo”, *JNES* 31(1972), pp. 302-311), 새로운 발굴 지역에서도 확인되었다(I. Finkelstein/D. Ussishkin/B. Halpern, (eds.) *Megiddo III: The 1992-1996 Seasons* (Tel Aviv: Emery and Claire Yass Publications in Archaeology, 2000). 성벽은 외곽에 건설되기에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성벽에 관한한 최소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지 않고 최대주의적 입장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68 Y. Shiloh, *The Proto Aeolitic Capital and Israelite Ashlar Masonry. Qedem 11*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79), pp. 2-7.

69 J.S. Holladay Jr, “Red Slip, Burnish and the Solomonic Gateway at Gezer”, *BASOR* 277/278 (1990), pp. 23-70; I. Finkelstein, “The Archaeology of the United Monarchy: an Alternative View”, *Levant* 28(1996), pp. 177-187; A. Mazar, “Iron Age Chronology: A Reply to I. Finkelstein”, *Levant* 29(1997), pp. 157-167; A. Ben-Tor/D. Ben-Ami, “Hazor and the Archaeology of the Tenth Century B.C.E.”, *IEJ* 48(1998), pp. 1-37; I. Finkelstein, “Hazor and the North in the Iron Age. A Low Chronology Perspective”, *BASOR* 314(1999), pp. 55-70; I. Finkelstein, “Gezer Revisited and Revised”, *TA* 29(2002), pp. 262-296; A. Mazar, “The Debate over the Chronology of the Iron Age in the Southern

에서 출토된 주전 9세기의 토기 형태와 앞서 살펴본 주전 10세기 초의 키르벳 케이야파 토기 형태를 이 세 장소에서 출토된 토기 형태와 비교하였을 때 이들은 주전 9세기라기 보다 주전 10세기의 형태임을 알려졌다.⁷⁰ 토기 형태는 절대적 기준이 없기에 연대 설정을 방사성동위원소 탄소 14의 결과로 해결하려 하였지만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⁷¹ 최근 게셀에서 나온 절대연대 결과는 지층 VIII의 도시가 주전 10세기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⁷² 따라서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을 종합하면, 주전 10세기에 건설된 이 세 장소는 모두 도시이며, 주전 10세기 초에 건설된 키르벳 케이야파의 요새화 구조-방이 있는 성문과 포곽 성벽-가 연속성 있게 발견된 것이다. 이 연속성은 만약 주전 10세기가 통일 왕국 시대이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국이라면 통일 왕국 시대의 도시의 건설 작업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덧붙여 주전 10세기에 건설된 도시들로 텔 엔-나스베, 벤세메스 지층 4-3의 성벽을 갖춘 도시⁷³와 최근 발견된 텔 라기스 지층 V의 도시 성벽(주전 10세기 말)은 일련의 요새화를 갖춘 도시 건설이 지속

Levant: Its History, the Current Situation and a Suggested Resolution”, in T.E. Levy/T. Higham, (eds.) *The Bible and Radiocarbon Dating: Archaeology, Text and Science* (London: Equinox, 2005), pp. 15-30; L.C. Webster et al. “The Chronology of Gezer from the End of the Late Bronze Age to Iron Age II: A Meeting Point for Radiocarbon, Archaeology, Egyptology and the Bible”, *PLoS ONE* 18/11(2023): e029311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93119>.

70 주전 10세기로 편년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연대 설정한다면, 후기 철기 시대 초기의 특징적인 토기 형태와 표면장식-적색 덧입힘 위에 불규칙적인 손마름질-의 비율이 더 높기에 키르벳 케이야파보다 약간 후대인 주전 10세기 중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H.-G. Kang, *윗글*(2012), pp. 161-195.

71 T.E. Levy/T. Higham, *윗글*(2005).

72 L.C. Webster et al. *윗글*(2013).

73 S. Bunimovitz/Z. Lederman, “The Iron Age Fortifications of Tel Beth Shemesh: A 1990-2000 Perspective”, *IEJ* 51(2001), pp. 121-147.

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⁷⁴

셋째, 세 장소에서는 지금까지 발굴을 통하여 비문이 발견되지 않았다.⁷⁵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비문을 바탕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문서 활동이 이 장소들에서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무존재의 무발견이라기 보다는 고고학적인 다른 이유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⁷⁶ 이는 주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된 사마리아에서도 해당 지층에서 비문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대한 궁전이 발견된 곳에서 비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부재였다고 보다는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이 주전 9세기 중심 도시였던 텔 이스르엘에서도 확인되는데, 그곳의 발굴을 통해서 해자와 4실 성문, 성벽, 두 개의 망대가 발견되었지만 비문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고고학적 무발견은 동시대의 다른 장소들에서 출토된 결과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전 10세기와 주전 9세기에 이스라엘 지역에 비문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위 장소들 이외에 다른 장소들의 발굴을 통해서 잘 알려졌다. 예를 들어, 최근 발굴 보고서가 출판된 텔 레호브 발굴을 통하여 이 시기의 지층으로 알려진 지층 VI부터 IV까지 무려 11개의 비문이 발견되었다.⁷⁷ 이는 왕성한 기록 활동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남유다 지역에서 발견

74 가르핀켈은 이전 발굴자들이 초기 철기 시대의 것으로 편년하였던 키르벳 에드-다와라의 요새화된 성읍을 주전 10세기의 것으로 재편년하였고, 발굴자들이 주전 10세기 중반에 건설된 도시로 확인하였던 벤세메스 Level 3의 도시를 재분석하여 Level 4의 것이며 주전 10세기의 것으로 주장하였다. Y. Garfinkel, "Early City Planning in the Kingdom of Judah: Khirbet Qeiyafa, Beth Shemesh 4, Tell en-Naşbeh, Khirbet ed-Dawwara, and Lachish V", *Jerusalem Journal of Archaeology* 4(2023), pp. 87-107.

75 게셀 농사력이 이 지층의 것으로 여겨지지만(A. Mazar, *윗글*(2013), p. 55. 각주 70번 참조), 발견 당시 고고학적 문맥에서 벗어났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76 강후구, *윗글*(2014), pp. 31-34.

77 S. Ahituv/A. Mazar, *윗글*(2013), pp. 39-68, 189-203.

된 비문들은 이러한 기록 활동이 북이스라엘에만 집중되지 않고 남유다 지역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⁷⁸

가르핀켈은 통일 왕국 시대를 그가 발굴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유다 지역 중심의 논의를 펼쳐 북쪽 지역을 통일 왕국 시대의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하솔 지층 X, 므깃도 지층 VA-IVB, 게셀 지층 VIII의 고고학적 결과들을 통일 왕국 시대와 연관시켜 해석하지 않은 것이다.⁷⁹ 그러나 물질문화의 연속성과 연대 설정 결과를 통하여 이 지점들의 논의는 통일 왕국 시대의 고고학적 결과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⁸⁰

5) 네게브의 정착지들

통일 왕국 시대의 정착지들의 수와 그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 세력과 관련된 것이기에 고고학적 중요 발견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착 분포와 그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연구 방법은 지표조사로서 누가 어떤 수준으로 토기 형태를 파악했느냐에 따라 통일 왕국 시대의 정착 지점 확인하는 일이 달라져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⁸¹ 다만 통

78 강후구, *윗글*(2014), pp. 149-160.

79 Y. Garfinkel/I. Kreimermann/P. Zilberg, *윗글*(2016), Fig. 1.

80 강후구, *윗글*(2014), pp. 114-128.

81 예를 들어 주목할만한 쉬펠라 지역의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연구결과를 보여준 예후다 다간의 논문(Y. Dagan, *The Settlement in the Judean Shephelah in the Second and First millennium B.C.: A Test-case of Settlement Processes in a Geographic Region*. Unpublished Ph.D. diss, Tel Aviv University (Hebrew with English summary)은 수용하기 어렵다. 발굴을 통해서 알려진 주전 10세기 초의 키르벳 케이야파를 지표조사에서는 모두 초기 철기 시대(주전 12-11세기)의 것으로 편년하였다. 발굴에 의하여 출토된 토기 형태 분석과 방사성동위원소 탄소 14 연대 측정한 결과 발굴자들은 후기 철기 시대 초기의 것으로 연대 설정하였지만(Y. Garfinkel/S. Ganor, *윗글*(2009), pp. 33-38, 119-160), 다간은 그가 행한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키르벳 케이야파의 토기는 초기 철기 시대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Y. Dagan, "Khirbet Qeiyafa in the Judean Shephelah: Some Considerations", *TA* 36(2009), pp. 68-81). 이는 발굴 결과보다 지표조사 결과를 더 신뢰하는 방법론적

일 왕국 시대의 역사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인 네게브에서의 정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이유가 그러한데 하나는 이 지역은 연 강수량이 200 밀리미터 이하여서 사람이 정착하기 힘든 지역이라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정착자들이 지표조사를 통하여 발견되었고 그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발굴되었다.⁸²

네게브 지역의 지표조사와 발굴을 통하여 약 50개가 넘는 장소가 고고학적으로 알려졌고, 출토된 토기들은 주전 10세기의 것으로 편년된다. 이 장소에서 출토된 토기 형태들은 앞서 언급한 하술 지층 X, 므깃도 지층 VA-IVB, 게셀 지층 VIII에서 출토된 토기 형태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키르벳 케이야와 토기와의 일정 정도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⁸³ 이 장소들은 이후 파괴되거나 버려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전 10세기 말경 이집트 제 22왕조 바로인 쇼생크 1세(시삭)가 군대를 보내어 이곳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룝소 카르낙 신전 벽화에 새겨진 쇼생크 1세의 원정 기록과 정복 성읍 목록에서 확인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쇼생크 1세는 가자에서 두 부대를 나누어 한 부대는 중앙산악지역과 요르단 동편 지역의 중심도시를 점령하였고 또 다른 한 부대는 네게브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네게브 지역의 약 70개의 점령장소를 점령하였다고 전한다.⁸⁴ 따라서 이 지역은 다시 이집트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정착이 특정 목

인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전의 연구 결과를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기에 수용할 수 없다.

82 R. Cohen/R. Cohen-Amin, *Ancient Settlement of the Negev Highlands. Vol. II: The Iron Age and The Persian Period* (Jerusalem: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2004) (Hebrew with English summaries); A. Mazar, *윗글*(1990), pp. 390-398; 강후구, *윗글*(2014), pp. 161-170.

83 H.-G. Kang, *윗글*(2012), p. 172.

84 앤슨 F. 레이니/R. 스티븐 나틀리, *윗글*(2010), pp. 246-248.

적을 지녔고 이집트는 이것을 빼앗았다는 점을 지시한다. 이 특정 목적은 아래에서 살펴볼 금속과 무역의 통로로 네게브 지역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⁸⁵

6) 팀나와 키르벳 엔-나하스의 구리 광산

최근 주전 10세기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결과 중 하나는 팀나와 키르벳 엔-나하스의 구리 광산 발견일 것이다. 홍해의 항구 도시인 에일랏 북쪽 40 킬로미터 경에 위치한 팀나는 이전 발굴을 통하여 통일 왕국 시대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발굴을 통하여 팀나가 주전 10-9세기경 많은 양의 구리를 생산하였음이 알려졌다.⁸⁶ 이 장소에서는 주전 10세기경 옷감이 발견되었는데 왕정에서 사용되는 보라색으로 염색된 천이 발견되었다.⁸⁷ 한편 팀나보다 더 많은 양의 구리 생산 거점으로 키르벳 엔-나하스가 알려졌는데 사해 남쪽 아라바 광야 동편 지역에 위치한 이곳에서도 동시대에 구리가

85 최근 주전 10세기 경의 네게브 지역 정착 지점들을 통일 왕국 시대와 연결시키지 않고 모압 지역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M.A.S. Martin/I. Finkelstein, "Iron IIA Pottery from the Negev Highlands: Petrographic Investigation and Historical Implications", *TA* 40(2013), pp. 6-45).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페이난 지역의 구리 광산은 남유다 지역과 연관 없고 네게브 지역과 쉬펠라 지역을 거쳐 해안 평야로 운송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I. Finkelstein, "The Southern Steppe of the Levant ca. 1050-750 BCE: A Framework for a Territorial History", *PEQ* 146(2014), p. 96). 그러나 시삭은 모압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와디 아라바와 아라비아로 이어지는 무역로로부터 파생하는 이스라엘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끊고 자신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네게브를 공격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곳에서 나온 토기들과 물질문화의 유사성은 쉬펠라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과 연계할 수 있다. 강후구, "키르벳 케이야파에서 발견된 수제(네게브) 토기와 함축된 고고학적 의미", 『서울장신논단』 29(2021), pp. 439-458.

86 약 1만 톤의 용재(slag)가 발견되어 이곳에서 많은 양의 구리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E. Ben-Yosef/R. Shaar/L. Tauxe/R. Hagai, "A New Chronological Framework for Iron Age Copper Production at Timna (Israel)", *BASOR* 367(2012), pp. 31-71.

87 N. Sukenik/D. Iluz/Z. Amar/A. Varvak/O. Shamir/E. Ben-Yosef, "Early evidence of royal purple dyed textile from Timna Valley (Israel)", *PLoS ONE* 16/1(2021): e024589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45897>

생산되었음이 밝혀졌다.⁸⁸ 이곳에서 생산된 구리를 통일왕국 시대 중심 지역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면 네게브 지역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압과 암몬 지역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경로였을 것이다. 따라서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에도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정착된 네게브 정착지들은 국가적 정책에 의하여 정착된 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왕국이 분열되고 국력이 약해진 시기에 이집트는 이 지역을 손에 넣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토론과 결론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쾌한 정의를 우리에게 남겼다.⁸⁹ 그의 역사 정의는 실제로 일어난 일 즉, 과거의 사실들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본 기존의 역사 정의를 넘어, 역사는 현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현재와 관계 속에서 과거가 기술된다는 핵심적 요소를 짚어 주어 역사 이해에 진일보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과거의 인물/사건의 선택, 배열, 원인관계와 역사 평가 행위, 즉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⁹⁰

88 이곳에서는 팀나에서 발견된 것보다 10배에 해당하는 약 10만 톤의 용재가 발견되었다. T.E. Levy/M. Najjar/J. van der Plicht/N. Smith/H.J. Bruins/T. Higham, “Lowland Edom and the High and Low Chronology: Edomite state formation, the Bible and recent archaeological research in southern Jordan”, in T.E. Levey/T. Higham, (eds.) *윗굴*(2005), pp. 134-157.

89 E.H. 카, (지교철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아름다운 날, 2009).

90 리처드 D. 넬슨, (이윤경 역) 『역사서』 (서울: 대한기독교선회, 2015), pp. 24-28. 한 사건에 대한 복수의 역사서술이 발생할 경우, 역사 문헌의 차이와 변이는 필수 불가결하게 등장하게 된다. 앗시리아 왕들의 원정 사건에 대한 서기관들의 상이한 역사 기록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역사 기록의 차이는 한 국가 안에서도 일어남을 지시하는 것이며, 역사서술의 특징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함을 보여준다(김태훈, “고대 메소포타

역사가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역사서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역사가에 대한 이해와 연구이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그들의 (선택적) 사관을 파악하지 않고는 그에 의한 역사서술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⁹¹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과거 역사보다 역사가에 대한 강조는 과거 역사를 현재의 역사가가 자기의 입장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놓이게 되었으며, 과거 사건에 대한 일부 사실만을 선택하고, 의도적인 사건 배열과 원인관계 설명을 통하여 역사를 해석한다.⁹²

역사 이해에 대한 위와 같은 방향 전환은 또한 구약성서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통일 왕국 시대 이해에 적용되었다. 통일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술한 동시대의 성서 자료는 하나도 없고 모두 후대의 역사가에 의하여 해석된 자료이다. 이에 역사가가 주어진

미아 역사 기록과 시리아-팔레스틴 역사: 앗시리아 왕실 문서들의 기록 양상과 역사 재건을 위한 사료로서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해르메니아투데이』 10(1999), p. 52-68 참조). 앗시리아 왕 산헤립의 남유다 침공 사건(주전 701년)에 대한 앗시리아 역사 기록과 성서 기록 차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한 사건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에서 역사서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역사서술과는 별도로 발굴을 통한 고고학적 자료는 또 다른 역사 정보를 알려준다(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82); 강후구, 『성서와 고고학2: 분열왕국 시대부터 산헤립 침공까지』 (서울: 센스토리출판사, 2022), pp. 159-186.

91 E.H. 카, 윗글(2009), pp. 19-21,

92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 (정희성 역) 『1984』, (서울: 민음사, 2019), pp. 345-346. 이 말은 기록하는 힘을 가진 ‘현재자’가 과거를 지배할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과거는 기록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현재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 권력가가 과거 역사를 조작하여 미래를 지배하고자 하는 위험성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역사가 각자의 입장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과거 사실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확인되는데, 오늘날 “사실확인(팩트체크)”이란 용어가 중요성을 띠고 있다(김경희, “신뢰받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실천을 바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보고서』, pp. 5-9). 최근 서울대학교에서는 언론사들이 사실성 여부를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팩트체크의 언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s://factcheck.snu.ac.kr/>).

자신의 환경에서 과거의 사건을 서술(역사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려고 보다 서술된 내용을 저술/편찬된 시대 중심으로 역사 평가한다. 구약성서는 역사 재구성을 위하여 상대화되었고, 역사성(historicity) 논의가 일어났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구약성서의 역사서술,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서술과 역대기의 역사서술의 특징, 서술 방식, 사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언하면,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서를, 그것이 전하고 있는 역사보다 서술한 역사가 중심으로 파악하고 역사가의 시대 환경 속에서 그 내용(역사서술)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불러일으켰다.⁹³ 한 연구는 통일 왕국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서뿐만 아니라 율법서의 내용까지 역사서술가 또는 편집자 시대 중심(요시야 시대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주장을 펼쳐⁹⁴ 학계에 적지 않는 파장을 일으켰다.⁹⁵ 이러한 연구 경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은 결국 사실 확인에 기반한 고고학적 연구 결과의 주된 기여라 할 수 있다.

93 벨슨은 여호수아서를 땅을 상실한 공동체를 위하여 이상적으로 그려진 서술로 이해하였고(리처드 D. 벨슨, 윗글, pp. 96-97), 프리츠와 나아만은 역대기 한 부분(대하 11:5-12)을 요시야 시대 또는 히스기야 시대를 반영하는 본문으로 이해하였다(Fritz, "The List of Rehoboam's Fortress in 2 Chr 11:5-12- A Document from the Time of Josiah" *Eretz-Israel* 15(Aharoni Volume, 1981), pp. 46*-53*; N. Na'aman, "Hezekiah's Fortified Cities and the LMLK Stamps", *BASOR* 261 (1986), pp. 5-21). 한편 사건이 일어나고 오랜 기간 후에 역사서술된 내용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고대 근동의 역사 자료에 대하는 입장과 성서 자료를 대하는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하여 학자들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이집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마네토의 *Aegyptiaca*는 몇 백 년, 어떤 왕들은 3천 년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3천 년 전의 왕들의 역사를 주전 3세기 경 마네토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J. Hoffmeier, *Ancient Israel in Sinai: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Wilderness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7-18.

94 이스라엘 핑겔스타인/닐 애셔 실버먼, (오성환 역)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서울: 까치글방, 2002).

95 W.G. Dever, "Excavating the Hebrew Bible, or Burying It Again?", *BASOR* 322(2001), pp. 67-77; I. Finkelstein/N.A.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A Rejoinder", *BASOR* 327(2002), pp. 63-73.

본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 역사 재구성을 위한 세 자료 가운데 매년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알려진 통일 왕국 시대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 시대와 관련된 최근의 자료를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고학적 연구 결과들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정착지에서 요새화(성문과 성벽)와 궁전 등의 공공시설을 갖춘 도시들의 등장이 주전 10세기(고고학적으로 후기 철기 시대 초기(IA IIA), 역사적으로는 통일 왕국 시대)에 등장하였다. 이는 남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등장하였고 중앙 산악지역뿐만 아니라 쉬펠라 지역까지 나타난다. 이는 이 지역을 동일한 물질문화 영역으로 묶을 수 있으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권력이 쉬펠라 지역까지 이르렀음을 가리킨다. 이는 이전 시기(초기 철기 시대, 사사 시대. cf. 앞 1장)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며 이러한 현상은 왕국 건설의 요소들이다. 이 현상은 블레셋 세력이 팽창하였던 정착 2단계(블레셋 이채색 토기 단계)에서 쇠퇴의 3단계(블레셋 퇴화 토기 단계)로의 변화 과정과 함께 일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지금까지 150년간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진 고고학적 발굴은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하여 G 지역의 계단식 구조물 외에 이렇다 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였지만, 최근 발굴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내놓았다. 하나는 거대한 석조 건물이다. 이전의 계단식 구조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던 건물의 실체가 발견되었고 이는 예루살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관청/궁전 건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오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통일 왕국 시대 지층의 다른 장소에서 알려졌던 문서 활동이 이 비문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알려진 것이다. 이 비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이 시기의 인장은 이 시기 예루살렘에서의 문서 활동 또는 서기관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최소주의적 입장에서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루

살렘은 왕국의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전 10세기 초기의 키르벳 케이아파에서 출토된 요새화된 도시와 많은 수의 토기 형태, 금속 제품들, 두 개의 비문 그리고 신전 모델 등은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된 논의 중 두 가지 중요한 주제(국가 형성과 성전 건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남유다 세력 중심의 중앙 권력가에 의한 도시 건설이 이미 다윗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솔로몬의 건축 활동(도시 건설, 궁전과 성전 건설)은 다윗 시대와 연관이 있음을 알려준다. 적지 않은 솔로몬 시대의 건축 요소들-강제 노역, 건축 기술과 양식 등은 다윗 시대에 기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약성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는 통일 왕국 시대는 지금까지 모든 역사 자료를 통틀어 동시대 고대 근동 문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이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통일 왕국 시대 이후 일어난 시삭 침공은 통일 왕국 시대를 평가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일 수 있다.

최근 20년간 이루어진 고고학적 연구 결과는 통일 왕국 시대 역사성과 관련한 두 가지 주제,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국가 형성과 예루살렘의 수도 역할에 대한 논의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만약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국가를 형성하였다면 통일 왕국 시대인 주전 10세기에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예루살렘은 수도의 역할을 감당할만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여 년 전 최소주의적 입장에서 통일 왕국 시대에 관하여 내린 결론에 반하는 것으로, 발견되지 않았음을 바탕으로 역사의 부재를 결론 짓는 방법론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

통일 왕국 시대와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는 구약성서의 구절들은 이 시대보다 수 세기 이후에 저술되고 편집된 신명기 역사서에 속한 한

부분이다. 통일 왕국 시대를 묘사한 이 구절들은 해석된 역사, 즉 과거의 사건/인물을 역사가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통일 왕국 시대와 후대 역사가 간 이루어진 이 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서 외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확한 고대 이스라엘 역사 재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술한 해석된 역사를 비교할 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일어난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구약성서가 전해주고 있는 통일 왕국 시대에 관한 기술의 역사성과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구약성서를 전하고 있는 인물/사건의 시대보다 저술/편찬한 시대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와 성서 외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 최소주의적 입장은 지양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강후구, 『성서와 고고학: 이스라엘 정착부터 시삭침공까지』 (서울장신대학교출판부, 2014).
- _____, “이스라엘 핀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의 ‘저연대(Low Chronology)’ 주장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구약논단』 65(2017), 172-209.
- _____,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구약 시대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8(2018), 202-225.
- _____, “키르벳 케야아파에서 발견된 수제(네게브) 토기와 함축된 고고학적 의미”, 『서울장신논단』 29(2021), 439-458.
- _____, 『성서와 고고학 2: 분열왕국 시대부터 산헤립 침공까지』 (서울: 센스스토리출판사, 2022).
- _____, “이스라엘/팔레스틴 고고학 역사: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논쟁들”, 『숭실사학』 제50집(2023), 81-124.
- 김경희, “신뢰받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실천을 바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보고서, 5-9.
- 김영진, “단 석비와 이스라엘 역사”, 『구약논단』 13(2002), 107-127.

- _____, “이스라엘 역사 연구 방법론과 그 과제”, 『구약논단』 8(2000), 175-200.
- 김태훈, “고대 메소포타미아 역사기록과 시리아-팔레스틴 역사: 앗시리아 왕실 문서들의 기록 양상과 역사 재건을 위한 사료로서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해르메니아투데이』 10(1999), 51-68.
- 데이비드 케너다인 엮음, (문화사학과 공역) 『굿바이 E.H.카』 (서울: 푸른 역사, 2005).
- 레스터 L. 그래비, (류광현/김성천 역) 『고대 이스라엘 역사: B.C. 2,000년경~B.C. 539년』, (서울: CLC, 2012).
- 리처드 D. 넬슨, (이윤경 역) 『역사서』 (서울: 대한기독교선회, 2015).
- 마르크 반 드 미에롭, (김구원/강후구 역) 『고대 근동 역사: B.C. 3000년경~B.C. 323년』 (서울: CLC, 2022).
- 앤슨 F. 레이니/R. 스티븐 노틀리, (강성열 역)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서울: 이레서원, 2010).
- 우택주, “주전 10세기 통일왕국 시대의 역사성 논쟁”, 『복음과 실천』 54/1(2014), 15-42.
- 유윤중, “고대 이스라엘 역사 찾기와 고고학: 수정주의자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신학논총』 34(2004), 105-127.
- 이스라엘 핑켈스타인/닐 애셔 실버먼, (오성환 역)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오성환 역), (서울: 까치글방, 2002).
- E.H. 카, (지교철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아름다운 날, 2009).
- J.H. 헤이스, (안홍철 역) “이스라엘 역사의 재구성에 대하여”, 『시대와 민중신학』 제 4집(1997), 372-378.
- Aharoni, Y. “The Stratification of Israelite Megiddo”, *JNES* 31(1972), 302-311.
- Ahituv, S. *Echoes from the Past :Hebrew and Cognate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Period* (Jerusalem: Carta, 2008).
- Ahituv, S./Mazar, A. “The Inscriptions from Tel Rehov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Script and Writing during Iron Age IIA” in E. Eshel/Y. Levin, (ed.) *See, I Will Bring a Scroll Recounting What Befell Me (Ps 408): Epigraphy and Daily Life from the Bible to the Talmud. Dedicated to the Memory of Hanan Eshel* (Journal of Ancient Judaism, Supplements, 12) (Vandehoeck & Rupprecht, 2013), 39-68, 189-203.
- Alexandre, Y. “A Fluted Bronze Bowl with a Canaanite-Early Phoenician Inscription from Kefar Vradim”, in Zvi Gal, (ed.) *Eretz Zafon. Studies in Galilean Archaeology* (Jerusalem :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2002), *65-*74.

- Amit, Y./Ben Zvi, Y./Finkelstein, I./Lipschitz, O. (eds.) *Essays on Ancient Israel in Its Near Eastern Context: A Tribute to Nadav Na'aman*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6).
- Ben-Tor, A./Ben-Ami, D. "Hazor and the Archaeology of the Tenth Century B.C.E.", *IEJ* 48(1998), 1-37.
- Ben-Yosef, E./Shaar, R./Tauxe, L./Hagai, R. "A New Chronological Framework for Iron Age Copper Production at Timna (Israel)", *BASOR* 367(2012), 31-71.
- Biran, A./Naveh, J. "An Aramaic Stele Fragment from Tel Dan", *IEJ* 43(1993), 81-98.
- _____. "The Tel Dan Inscription: A New Fragment", *IEJ* 45(1995), 1-18.
- Bunimovitz, S./Lederman, Z. "The Iron Age Fortifications of Tel Beth Shemesh: A 1990-2000 Perspective", *IEJ* 51(2001), 121-147.
- Cohen, R./Cohen-Amin, R. *Ancient Settlement of the Negev Highlands. Vol. II: The Iron Age and The Persian Period* (Jerusalem: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2004) (Hebrew with English summary).
- Dagan, Y. *The Settlement in the Judean Shephelah in the Second and First millennium B.C.: A Test-case of Settlement Processes in a Geographic Region*. (Unpublished Ph.D. diss. Tel Aviv University, 2000) (Hebrew with English summary).
- _____. "Khirbet Qeiyafa in the Judean Shephelah: Some Considerations", *Tel Aviv* 36(2009), 68-81
- Davies, P.R. "House of David Built on Sand: The Sins of Biblical Maximizers",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0/4(1994), 54-55.
- _____. *In Search of 'ancient Isra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Dearman, J.A. *Studies in the Mesha inscription and Moab*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9).
- Demsky, A. "The 'Izbet Sartah Ostrakon: Ten Years Later", in I. Finkelstein, *'Izbet Sartah: An Early Iron Age Site near Rosh Ha'ayin, Israel* (BAR International Series 299), 186-197.
- Dever, W.G. "Excavating the Hebrew Bible, or Burying It Again?", *BASOR* 322 (2001), 67-77.
- _____. "Solomon, Scripture, and Science: The Rise of the Judahite State in the 10th Century BCE", *Journal of Jerusalem Archaeology* 1(2021), 102-125.
- Faust, A. "The Large Stone Structure in the City of David", *ZDPV* 126/2(2010), 116-130.

- Finkelstein, I. "The Archaeology of the United Monarchy: an Alternative View", *Levant* 28(1996), 177-187.
- _____. "Hazor and the North in the Iron Age. A Low Chronology Perspective", *BASOR* 314(1999), 55-70.
- _____. "Gezer Revisited and Revised", *Tel Aviv* 29(2002), pp. 262-296.
- _____. "The Southern Steppe of the Levant ca. 1050-750 BCE: A Framework for a Territorial History",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46(2014), pp. 89-104.
- Finkelstein, I./Na`aman, N./Römer, T. "Restoring Line 31 in the Mesha Stele: The 'House of David' or Biblical Balak?", *Tel Aviv* 46(2019), 3-11.
- Finkelstein, I./Silberman, N.A. "The Bible Unearthed: A Rejoinder", *BASOR* 327(2002), 63-73.
- Finkelstein, I./Ussishkin, D./Halpern, B. (eds.) *Megiddo III: The 1992-1996 Seasons* (Tel Aviv: Emery and Claire Yass Publications in Archaeology, 2000).
- Finkelstein, I./Ussishkin, D./Singer-Avitz, L. "Has King David's Palace in Jerusalem been found?", *Tel Aviv* 34(2009), 142-164.
- Fritz, V. "The List of Rehoboam's Fortress in 2 Chr 11:5-12- A Document from the Time of Josiah" *Eretz-Israel* 15(Aharoni Volume, 1981), 46*-53*.
- Garfinkel, Y./Ganor, S. (eds.) *Khirbet Qeiyafa Vol. 1: Excavation Report 2007-2008*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9).
- Garfinkel, Y./Ganor, S./Hasel, M.G. *Khirbet Qeiyafa Vol. 2. The 2009-2013 Excavation Seasons. Stratigraphy and Architecture (Areas B, C, D, 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4).
- Garfinkel, Y./Golub, M.R./Misgav, H./Ganor, S. "The 'Išba' al Inscription from Khirbet Qeiyafa", *BASOR* 373 (2015), 217-233.
- Garfinkel, Y./Kang, H.-G. "The Relative and Absolute Chronology of Khirbet Qeiyafa: Very Late Iron Age I or Very Early Iron IIA?", *IEJ* 61 (2011), 171-183.
- Garfinkel, Y./Kreimermann, I./Zilberg, P. *Debating Khirbet Qeiyafa: A Fortified City in Judah from the Time of King David*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6).
- Garfinkel, Y./Mumcuoglu, M. *Solomon's Temple and Palace: New Archaeological Discoveries* (Jerusalem: Old City Press, 2016).
- Hodder, I./Hutson, S. *Reading the Past: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Hoffmeier, J.K. "Out of Egypt: The Archaeological Context of the Exodus", in M. Warker, (ed.) *Ancient Israel in Egypt and the Exodus* (Washington: Biblical Archaeology Society, 2012), 1-20.
- _____. *Ancient Israel in Sinai: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Wilderness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Holladay Jr, J.S. "Red Slip, Burnish and the Solomonic Gateway at Gezer", *BASOR* 277/278 (1990), 23-70.
- Jamieson-Drake, D.W. *Scirbes and Schools in Monarchic Judah: A Socio-Archaeological Approach* (Sheffield: Almond Press, 1991).
- Kallai, Z. "The Kingdom of Rehoboam." *Eretz-Israel* 10 (Shazar Volume, 1971), 245-254. (in Hebrew)
- Kang, H.-G. *The Pottery Assemblage of Khirbet Qeiyafa and It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early 10th century BCE in Judah*. Unpublished Ph.D. diss.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12).
- Kang, H.-G./Garfinkel, Y. "Finger-Imprinted Jar Handles at Khirbet Qeiyafa: New Light on Administration in the Kingdom of Judah", *Levant* 47 (2015), 186-205.
- _____. *Khirbet Qeiyafa Vol. 6. Excavation Report 2007-2013: The Iron Age Pottery*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8).
- Lemaire, A. "House of David' Restored in Moabite Inscription",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0/3(1994), 30-37.
- Lemche, N.P. *Ancient Israel: A New History of Israelite Society* (Sheffield, 1988).
- Levy, T.E./Higham, T. (eds.) *The Bible and Radiocarbon Dating: Archaeology, Text and Science* (London: Equinox, 2005).
- Lipschits, O. "Literary and Ideological Aspects in Nehemiah 11",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1(2002), 423-440.
- Martin, M.A.S./Finkelstein, I. "Iron IIA Pottery from the Negev Highlands: Petrographic Investigation and Historical Implications", *Tel Aviv* 40(2013), 6-45.
- Mazar, A.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0).
- _____. "Iron Age Chronology: A Reply to I. Finkelstein", *Levant* 29(1997), 157-167.
- _____. "Remarks on Biblical Traditions and Archaeological Evidence Concerning Early Israel", in W.G. Dever/S. Gitin, (eds.) *Symbiosis, Symbolism and the*

- Power of the Past: Ca naan, Ancient Israel and their Neighbors from the Late Bronze Age through Roman Palestine*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6), pp. 255-272.
- _____. "The Beth Shean Valley and its Vicinity in the 10th Century BCE", *Jerusalem Journal of Archaeology* 1(2021), 241-271.
- Mazar, E. *The Palace of King David: Excavations at the Summit of the City of David: Preliminary Report of Seasons 2005-2007* (Jerusalem: Shoham Academic Research and Publication, 2009).
- Mazar, E./Ben-Shlomo, D./Ahituv, S. "An Inscribed Pithos From the Ophel, Jerusalem", *IEJ* 63(2013), 39-49.
- McCarter, P.K. "The Apology of David",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9(1980), 489-504.
- Misgav, H./Garfinkel, Y./Ganor, S. "The Ostrakon", in Y. Garfinkel/S. Ganor, (eds.) *Khirbet Qeiyafa Vol. 1: Excavation Report 2007-2008*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9), 243-257.
- Na'aman, N. "Hezekiah's Fortified Cities and the LMLK Stamps", *BASOR* 261(1986), 5-21.
- Petrovich, D. "The Ophel Pithos Inscription: Its Dating, Language, Translation, and Script", *PEQ* 147/2(2015), 130-145.
- Redford, D. *Egypt, Canaan and Israel in Ancient Tim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Renz, J. *Die altberäisichen Inschrift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 Sass, B. *The Alphabet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The West Semitic Alphabet ca. 1150-850 BCE. The Antiquity of the Arabian, Greek and Phrygian Alphabets*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2005).
- Schmidt, B.B. (ed.)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Israel*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 Shiloh, Y. *The Proto Aeolic Capital and Israelite Ashlar Masonry* (Qedem 11.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79).
- _____. *Excavations at the City of David I: 1978-1982. Interim Report of the First Five Seasons* (Qedem 19.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84).
- Sukenik, N./Iluz, D./Amar, Z./Narvak, A./Shamir, O./Ben-Yosef, E. "Early evidence of royal purple dyed textile from Timna Valley (Israel)", *PLoS ONE*

- 16/1(2021): e024589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45897>
- Tappy, R.E./McCarter, P.K./Lundberg, M.J./Zuckerman, B. "An Abecedarium of the mid-Tenth Century B.C.E. From the Judaean Shephelah", *BASOR* 344(2006), 5-46.
- Thompson, T.L. *Early History of the Israelite People: From the Written and Archaeological Sources* (Leiden: E.J. Brill, 1992).
- Trigger, B.G. *Understanding Early Civilization: A Comparative Stu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Ussishkin, D.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1982).
- Vainstub, D. "Incense from Sheba for the Jerusalem Temple", 『Journal of Jerusalem Archaeology』 4(2023), 42-68.
- Vaughn, A.G./Killebrew, A.E. (eds.) *Jerusalem in Bible and Archaeology*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 Webster, L.C./Wolff, S.R./Ortiz, S.M./Barbosa, M./Coyle, C./Arbino, G.P./Dee, M.W./Hua, Q./ Jacobsen, G.E. "The Chronology of Gezer from the End of the Late Bronze Age to Iron Age II: A Meeting Point for Radiocarbon, Archaeology, Egyptology and the Bible", *PLoS ONE* 18/11(2023): e029311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93119>.
- Winderbaum, A. "The Iconic Seals and Bullae of the Iron Age", in E. Mazar, (ed.) *The Summit of the City of David. Excavations 2005-2008. Final Reports Vol. I. Area G.* (Jerusalem: Shoham, 2015), 363-419.

검색어

고대 이스라엘 역사, 고대 이스라엘 역사 재구성, 통일 왕국 시대, 주전 10세기, 고고학 자료

[ABSTRACT]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Historiography: Recent Archaeological Results for United Kingdom Period

Hoo-Goo Kang
Seoul Jangsin University

The period of United Kingdom, dated to the 10th century BCE in biblical archaeology, is one of the most vehemently debated periods for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Scholars' opinions differ in wide range from nihilistic point of view denying the existence of United Kingdom to the one accepting the biblical description at face value.

This essay examines methodological matrix in three main sources for reconstructing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biblical source, historical source, and archaeological source), and also analyzing historical sources as well as archaeological results from Jerusalem, Khirbet Qeiyafa, Tel Hazor, Tel Megiddo, Tel Gezer and settlement sites in the Negev. It argues that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land of Israel thus far revealed the realities of the period of United Kingdom, dated to the 10th century BCE and that they are assumed to provide material culture for state formation and geo-political status of Jerusalem. This leads us to consider that the biblical descriptions for the United Kingdom period could be main historical sources even though we acknowledge that they are interpreted from a religious point of view and a part of Deuteronomistic History was composed centuries later.

key words

History of Ancient Israel, Reconstruction of History of Ancient Israel,
United Kingdom period, 10th century BCE, Archaeological Source

투고일: 2024년 07월 16일

심사일: 2024년 07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8월 12일

www.kci.go.kr